

금융 Weekly Insight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섹터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9월 첫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79.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1.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금융업종 주간 수익률은 은행(+5.4%), 보험(+2.9%), 증권(+2.0%) 등 모두 상승.
-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백투백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미국의 FED도 9월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빠른 금리 상승 속도가 새로운 화두로 부각.
- 시장 컨센서스와 같은 점진적 금리 상승 기조 하에서는 1) 보험이 신규투자이익수익률 상승, 부채 부담 규모 축소 등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크고, 2) 은행은 NIM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와 영업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ROE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금융 Overview

- 은행 - 한국은행의 연이은 금리 인상: 은행 업종은 w-w 5.4% 상승하며 KOSPI(w-w -1.8%)를 아웃퍼폼. 지난주 한국은행은 7월에 이어 연달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 당초 예상보다 빠른 호흡의 금리 인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 은행의 경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적 및 투자심리 관점에서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 현재 당사 economist가 예상하고 있는 (27년 말 3.5% vs 현재 3.0%) 궤적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은행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NIM 확대가 이자이익의 증가 속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확대 효과가 ROE 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 한편, 금리 상승은 차주의 이자부담 증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를 야기 가능. 가령, 가계의 소득 증가 속도가 유동성 증가 속도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경우, 결국 가계는 이자부담 충당을 위해 소비 축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내수 소비 위축 및 자영업자와 내수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필요.
- 증권 - 바닥 확인 지속: 증권 업종은 w-w 2.0% 상승하며, KOSPI 지수를 오랜만에 아웃퍼폼. 지난주(8/24~28) 일평균 거래대금은 43조원 수준을 기록하며, 증시 활동성이 축소되는 모습이 지속. 다만, 5월 이후 증권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지속된 상황에서, 일부 저평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판단. 거래대금 축소와 더불어, 금리 상승 기조 또한 증권사 3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크게, 1) 채권 운용 손익 등 운용 손익 변동성 확대 요인 및, 2) 조달 금리, WM 상품 발행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이자이익 스프레드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여전히 절대적 이익/기대 배당 규모에서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으나, 단기 모멘텀 측면에서는 열위인 상황.
- 보험 - 금리 상승 수혜 + 균형 성장 기조 부각: 보험 업종은 w-w 2.9% 상승하며, KOSPI 지수를 아웃퍼폼. 보험업종의 경우 1) 금리 상승에 따른 펀더멘탈 개선 기대감 및, 2)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이 부각되었음. 특히, DB손해보험이 새로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며, 1) 기존 대비 목표 주주환원율 상향 (별도 기준 35% → 50%), 2) 자본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균형 성장 선언 등이 업데이트 되었음. 특히, 공격적인 외형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1) CSM 가정 변동성 및, 2) 해약환급금준비금 가속 적립에 따른 배당재원 축소 등 부작용이 회사에서 인정된 만큼, 업권 전반적인 경쟁 속도 조절 및 이에 따른 보험사 별 수익성 회복이 관찰될 것으로 기대.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8/24) 상반기 은행권 이자이익 32조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 - 금감원에 따르면, 26년 상반기 국내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32.2조원으로 8.3% y-y 성장. - 역대급 이자 장사를 한 것은 대출 증가와 금리 상승이 맞물린 결과. 상반기 중 이자수익 자산 평잔은 3628.1조원으로 6.4% 증가했고, NIM은 1.52%에서 1.56%로 4bp 상승. - 반면, 금리 상승 여파로 보유채권 등에서 손실이 발생, 비이자이익은 2.9조원으로 43.4% y-y 감소. - 결과적으로 은행 상반기 순이익은 13.8조원으로 0.9조원 y-y 감소. 순이익 감소는 24년 이후 2년 만.	연결기준 이익은 역대 최대치 - 반면 은행 기준 이익은 y-y 감소: 당사 커버리지 하 은행 및 금융그룹들의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반면, 은행 기준 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는 이자이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감소했기 때문. 역으로 추가적인 실적 개선 여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 필요 - 이자이익 성장 재개에 초점 필요: 하지만, 은행의 이익이 감소한 것은 역으로 은행들의 실적 개선 여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 금리 방향성이 보다 가시화됨에 따라 유가증권 운용 이익은 안정화될 여지가 크고, NIM의 추가 개선 등에 따른 이자이익 성장세는 견조하게 이어질 여지가 크며, 이 과정에서 은행은 영업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이는 궁극적으로 은행 ROE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시장 신뢰도 제고를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8/24) 파킹통장 재차 부각 - 5대 은행의 수시 입출식 예금을 포함한 요구불 예금 잔액은 18일 기준 671.6조원으로 전월 말대비 5.7조원 증가. 이에 대한 이유 중 하나는 증시 불확실성 등에 따른 단기 대기자금 수요 증가도 있는 것으로 풀이. 특히, 같은 기간 금리 상승으로 예금의 상품 매력도가 제고된 것이 일부 기여. - 이에 은행들은 일반 입출금 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을 운영. 특히, 5대 은행은 200만원 안팎의 소액 예금에 최고 4%대 금리를 주는 상품을 판매. - 다만, 은행 상품별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최초 가입이나 급여 이체 등 각종 우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한편, 저축은행들은 5% 이상을 제공하는 파킹통장을 제공하되, 이들 상품 또한 조건 충족이 필요. 가령, SBI저축은행의 7.7%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만 17~39세 0.5%p, 간편결제 계좌 등록 0.5%p, 신규고객 4%p 등의 우대 조건 충족이 필요.	파킹통장 우대 금리 조건에 초점 - 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 및 수익성 관점 접근: 파킹통장 금리 자체만 놓고 보면 역마진도 우려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은행들 또한 수익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1) 200만원 내외의 소액에 우대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은행의 비용 부담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2) 우대조건 상 신규 고객 유치 비용 혹은 교차 판매를 통한 수익성 제고 노력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파킹통장 금리 경쟁 과열 시에는 부담으로 작용 가능: 현 시점에서는 파킹통장 금리 상승이 부담은 아니라 판단되지만, 혹여라도 금리 경쟁이 과열도리 경우에는 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유의 필요. 실제로 과거 인터넷은행 중심으로 파킹통장 금리 인상 경쟁이 이뤄진 경험이 있기 때문. 다만, 은행들 입장에서는 코픽스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연동으로 부담이 시차를 두고 완화될 수 있고, 일부 은행들은 기업 수신 유입을 통해 관련 부담을 완충시킬 수 있는 만큼,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
	(8/24) 보증 대출 확대 - 보신 주의 경계 필요 - 올해 들어 대규모 전액 보증 상품이 잇달아 출시. 신보는 4월 4대 시중은행과 1.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협약보증을 체결, 최초 3년간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 기업은행 또한 61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하면서 3년간 100% 보증을 적용. - 신보와 기보는 원칙적으로 85~90% 수준의 부분 보증을 운용. 다만, 두 기관 모두 핵심 분야 등 예외적 경우에는 보증비율을 100%까지 높일 수 있는데, 최근 생산적 금융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지원 목적의 특별출연 협약에서 100% 전액 보증이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 은행은 창업 초기 기업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은행이 자체 신용만으로 대출을 내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춰주는 취지라 설명.	은행의 리스크 분산에 따른 자본비율 부담 완화에도 초점 필요: 최근 은행은 생산적 금융은 물론 포용 금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AI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 니즈 또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 즉, 은행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역할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이 과정에서 보증의 활용은 단기적으로 대손 부담을 낮추는 요인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음으로써 CET-1 비율을 제고, 보다 많은 유동성 공급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필요. 은행의 위험 분산을 위한 시스템 미비도 고려 필요: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대출의 리스크만 분리해서 매각하는 SRT (Significant Risk Transfer) 혹은 CRT (Credit Risk Transfer) 상품이 존재. 물론, 여전히 규모는 작지만, 총당 부담 및 자본비율 부담 완화를 위해 활용 중. 반면, 한국은 아직 이러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 이는 은행들의 입장에서 서구와 같이 리스크를 분리하거나 완화할 시장이 여전히 미비함을 시사. 결국, 보증 보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개별 은행들의 리스크에 대한 가격이 책정되고 거래되는 등의 뒷받침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8/24) 원화 가치 상승 - 생산적 금융 여력 확대 - 최근 원화 가치의 가파른 상승으로 금융지주의 CET-1 비율은 건조한 개선세를 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 통상 원/달러 환율이 10원 개선 시 CET-1 비율은 1~3bp 개선. 현재까지 분기말 대비 166.8원/달러 절상된 점을 감안하면, CET-1 비율은 최대 50bp 가까이도 개선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 - 금융그룹들은 자본여력 개선을 하반기 생산적 금융 확대에 활용 계획. 한 주요 은행 기업금융 담당 임원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 여신 집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언급.	상반기와 전혀 다른 자본비율 분위기: 상반기 중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생산적 금융 확대 부담이 맞물리며 은행들은 CET-1 비율 하락에서 비롯되는 우려가 커졌음. 그러나, 하반기 들어 가파른 환율 하락은 은행의 CET-1 비율 제고, 대출 성장 및 주주환원 여력 제고를 시사. 다만, 급격한 생산적 금융 확대보다는 속도 조절 전망: 다만, 최근 환율 하락으로 인해 은행들이 급격히 생산적 금융을 늘리기보다는 속도 조절에 나설 여지가 크다고 판단.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 목표 달성률을 상반기에 높여 놓은 만큼, 하반기 부담이 우려대비 낮은 가운데, 여전히 매크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건전성 리스크 및 환율 불안 요인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 즉, 여전히 올해 연간 4~5% 수준의 성장 목표 달성 가능성에 초점 필요. 27년 성장 및 주주환원에 긍정적 요인: 현 시점에서 축적된 자본은 결국 27년 성장과 주주환원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초점 필요.
	(8/24) iM금융 차기 회장 선임 준비 착수 - KB금융 연임 여부가 올해 11월 결정되는 가운데, 내년 3월 회장 임기가 끝나는 iM금융도 세부적인 차기 회장 조건을 공개. 이 기준을 바탕으로 조만간 후보자 선정 절차에 들어갈 전망. - iM금융은 이에 최근 차기 회장 자격 요건을 공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융당국 제재를 받지 않은 금융전문가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기본 요건으로 제시. 만 67세 이하이면서 20년 이상 금융회사 근무 경력도 충족 필요. 더 나아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금융회사에서 CEO 또는 부회장, 부사장 경력이 있는 자라는 요건이 새로 추가.	은행 최고 경영진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과거 여러 사례에서 은행의 최고 경영진의 역량에 따라 은행의 펀더멘털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 즉, 은행 최고 경영진이 누가 되느냐는 기업 가치 제고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 특히,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고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현재의 환경은 은행 최고 경영진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 Banker의 중요성에 초점 필요: 은행은 높은 부채 비율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외형 확장과 리스크 관리 모두에 수 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Banker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러한 관점에서 은행들의 CEO 요건 강화는 분명 필요한 요소인 동시에 과거 일부 은행에서 경험했던 리스크를 줄이는 요인이라 판단.
	(8/25) LTV 60% 초과 고위험 주담대 162조원 - 5대 은행의 LTV 60%를 넘는 고위험 주담대가 162조원을 기록. 이는 주담대의 29.8%를 차지. 참고로, 고LTV 대출은 60~80% 구간에 집중되었는데, 전체 고위험 주담대 중 92.2%가 해당 구간에 분포. - 금융위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고 LTV 주담대를 고위험 유형에 추가하고 평균 위험가중치의 2~4배를 적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 이미 LTV 60% 초과대출에 대해 평균 위험가중치의 2배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4배까지 상승 가능성을 시사. - 다만, LTV 기준 위험가중치의 일률적인 상향은 오히려 지방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LTV 60% 이하 주담대 70.2% - 안정성 확인: LTV 60% 이하인 주담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계산 가능. 특히, LTV 50% 이하는 전체 주담대의 절반을 상회. 이는 은행들의 주담대에 대한 부실 및 부실 시 원금 회수 우려가 낮음을 시사. 신규 주담대에만 적용 시에는 영향 제한적: 주담대 잔액이 아닌 신규 주담대에만 RW 상향이 적용될 경우, 은행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특히, 은행의 유동성 공급 니즈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지난 해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사례와 같이 정책적 유연성이 발휘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 실수요자 보호도 특히 고려 필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 등의 규제지역에서는 LTV 60%를 초과하기 어려운 반면, 지방 및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70%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고려 필요. 이 경우 언론 보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은행들은 부득이하게 서울 수도권 중심의 LTV가 낮은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 가능하기 때문.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8/27)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윤곽 - 금융위는 9월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 여당에 제출할 예정. 기존에 발의된 안이 많아 정부안이 중심축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 - 정부안의 핵심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거래소는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고, 대주주 보유 가능 지분은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되, 사업 모델의 혁신성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34%까지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다만, 대주주 보유 지분 제한 및 강제 처분 등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경영권 위협도 높아지는 만큼, 통과 시점은 미지수. 또한, 거래소별 영향도 상이.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 보유 지분이 25%대로 34% 예외 인정 시 현 지분 유지 가능한 반면, 빗썸처럼 최대주주 지분율이 70% 상회하는 곳은 상당한 지분조정이 불가피.	하반기 중 구체화 기대는 높지만, 상당한 논의 필요 가능성은 고려 필요: 하반기 중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높지만, 대주주 요건 등에서부터 영향이 상이하고 일부 항목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 만큼, 상당한 기간 논의가 필요, 실제 통과 시점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 보다 신중한 관련 종목 접근 필요: 법제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은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 다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1) 지난 1년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가운데, 2)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도입 등에 따른 실적 영향의 규모는 물론, 3) 시점과 수혜 기업에 대한 판단이 법안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 스테이블 코인 - 핵심은 산업 구조의 변화: 더 나아가,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비용 부담 절감을 의미하는 만큼, 금융업 전반에서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원의 감소를 시사할 수 있음. 즉, 이의 도입이 모든 금융사에 수혜라는 접근보다는, 결국 변화하는 환경 및 이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어떤 금융사가 성공적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이를 기반으로 플러스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
	(8/27) 롯데 손보 매각 - 신한과 협상 결렬로 공개매각 전환 - IB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 매각과 관련 신한지주와의 협상이 결렬,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도. 롯데손보 지분 77%가 매각 대상으로, 신한지주는 지분 100% 기준 1조원 수준의 가격을 제시한 반면, 대주주인 JKL파트너스는 1조원 초반 가격을 원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도.	신한지주의 M&A에 대한 원칙 재확인 긍정적: 당초 일각에서는 신한지주의 롯데손보 M&A와 관련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는 롯데손보 인수 시 높은 인수 가격은 물론, 추가 유상증자 부담, 그리고 정상화까지 그룹 ROE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인수 부담으로 인한 자본비율 하락이 주주환원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우려에 대해 동사는 연결 ROE 기여 및 주주환원 계획의 이행이라는 큰 틀에서 M&A를 진행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금번 사례는 이러한 동사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판단. 다른 금융그룹에도 시사점 판단: 신한지주의 롯데손보 매각 협상 결렬은 다른 금융그룹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 현재 은행계 금융그룹들은 모두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ROE 상승 및 주주환원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 이행 중에 있음. 롯데손보 인수가 인수 가격에 따라 ROE, 자본비율, 주주환원에 부담을 야기, 이러한 계획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은행계 금융그룹이 쉽게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8/27)금융위, "1가상자산 거래소 - 1은행" 폐지 아직 이르다 -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1거래소 - 1은행' 체제 폐지에 대해 현행 체계가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과 가상화폐거래소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현재 가상화폐 2단계법을 마련 중인 만큼, 이 법이 제정, 시행된 뒤 거래소가 독자적인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충분히 갖췄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정부 내에서는 복수 은행 제휴가 허용되면 여러 은행에 거래 정보가 분산, 자금세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음. 이는 제휴 은행 증가 시 한 거래소를 오가는 자금 정보가 분산되어 개별 은행이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 특히, 법인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가 본격적으로 허용될 경우,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자금 흐름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은행을 골라 제휴하는 부작용도 우려. - 또한, 금융위는 복수 은행 허용이 독과점 구조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 은행들이 대형 거래소와의 제휴 선호 시, 중소 거래소는 제휴 은행을 늘리지 못해 격차가 더욱 확대 가능.	거래소와 은행 제휴 체계의 핵심은 자금세탁 방지: 현재 거래소와 은행이 제휴를 맺고 있는 체계의 핵심 로직은 자금세탁 방지에 있음. 문제는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 중인 가운데, 향후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RWA 등 다양한 가상자산의 출시, 법인의 시장 참여, 가상자산 기반 ETF 출시 등에 따라 거래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고, 복잡성 또한 심화될 수 있다는 점.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는 자금세탁 방지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판단. 즉,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체계는 당분간 이어질 여지가 크다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8/27)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 은행 주담대 금리 8% 시대 오나 -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연 8%대를 향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현재 5대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형 (5년) 금리는 연 4.72~7.17%로 집계. 중장기적으로 한은의 통화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장 금리도 지속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 -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연 6%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 신규 주담대 수요자는 물론, 과거 저금리 시기에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도 부담이 가중. 연 2~3% 수준의 5년 주기형 상품이 금리 재산정 시기를 맞아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금리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일차적 관건은 금리 인상 속도: 결국 관건 중 하나는 금리 인상 속도. 이는 가계를 비롯한 차주들이 이자 부담 증가를 경기 회복에 따른 소득 증가로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기 때문.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의 연이은 금리 인상은 단기간에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물론, 신규 주담대 증가 속도가 더딘 만큼, 이에 따른 부담이 단기간에 가시화되지는 않을 전망. 다만, 변동 금리부 대출은 코픽스 금리 상승을 대체적으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고정형 주담대 (5년)은 5년 이내 리프라이싱 주기 도래 시 한 번에 금리 변동 폭이 반영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결국, 경기 회복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가계 등의 경제 주체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 이자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 가령,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같이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주담대의 경우에는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 위축,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 경기 관련 차주 (예: 자영업자)의 현금흐름에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필요.
증권	(8/28) 파격적 금리 내세웠는데...증권사 IMA 운용수익 '빨간불' - IMA(종합투자계좌) 잔고가 4조원 돌파를 앞두고 NH투자·한국투자·미래에셋 등 대형사들이 기준수익률을 연 4%에서 최대 5%까지 경쟁적으로 상향. - NH투자증권의 신규 IMA 상품은 기준수익률 4.5% 제시 후 판매 개시 하루 만에 완판될 만큼 소비자 수요가 강하나, 기준수익률 인상이 증권사의 실제 운용 수익률 달성 기준을 동시에 높이는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 - 시장금리 추가 상승이나 운용 자산 성과 미달 시 성과보수 미확보 또는 운용손익 직격 리스크가 증권사 손익에 반영되는 구조적 취약성 부각. (8/27) 미래에셋증권, 日 증권사 인수 검토 공식화...NISA 판매망 확보 전략 - 미래에셋증권이 8월 27일 전자공시를 통해 일본 현지 증권사 3~4곳을 인수 후보로 검토 중임을 공식화. - 인수 목적은 급성장 중인 일본 NISA 시장에서 글로벌X재팬 ETF 등 한국계 운용상품의 판매채널을 내재화하는 데 있으며, 글로벌X재팬 NASDAQ100 커버드콜 ETF는 상장 4개월 만에 운용자산 500억 엔 돌파. - 인수 대상·가격·일정은 미확정이며 1개월 내 재공시 예정으로 구체화 진행 중. 국내 증시 부진으로 해외 수익 다각화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회사 차원에서 글로벌 IB 확장 의지가 재확인. (8/25) 은행서 증권사로 간 퇴직연금 5.2조...금감원, DC→IRP 이동도 추진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2024년 10월) 이후 1년 8개월간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누적 자금이 5조2천억원으로, 전체 이전 자금(15.9조원)의 33%를 차지하며 업권 간 이동 중 최대 규모 기록. - 금감원은 현재 타사 IRP 간에만 허용된 실물이전을 DC→타사 IRP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2026년 9월 개선 방향 확정 후 10월 전산 개발 착수 예정. - 제도 확대 시 은행·보험 DC 가입자가 증권사 IRP로 비과세·비손실 이전하는 경로가 열리며 자금 이탈 압력 추가 가중 전망.	IMA 기준수익률 경쟁 과열, 조달-운용 스프레드 축소 여부 확인 필요: IMA는 기준수익률을 사실상 보장에 가깝게 제시하는 구조로 자금 유입이 늘수록 운용 포트폴리오 수익률 달성 압박이 누적. 고금리 채권·대출형 자산 위주 운용 전략은 시장금리 추가 상승 시 평가손실 위험을 수반하며, 기준수익률 5% 초과 경쟁 지속 시 증권업 전반의 IMA 수익성 훼손으로 연결 가능성에 주목. IMA 잔고 상위사의 운용 포트폴리오 듀레이션·크레딧 익스포저 점검이 필요하며 당국 개입 여부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판단. 일본 NISA 교두보 확보, 중장기 해외 수수료 수익 다각화 기대: 인수 성사 시 미래에셋증권은 ETF 운용-현지 판매망 수직 계열화로 NISA 계좌 자금의 자사 상품 흡수 비율을 높이는 수익 구조 확보 가능. 단기적으로 일본 법인 인수·운영 비용이 수익성에 부담이나 NISA 시장 성장 감안 시 중장기 수수료·운용보수 성장 기여는 긍정적 방향. 현재 인수 대상 및 가격 미확정으로 추가 반영이 제한적이며, 향후 재공시 시점에서 거래 규모·자금 조달 방식이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핵심 변수로 작용 전망. DC→IRP 실물이전 확대, 증권사 퇴직연금 AUM 구조적 성장 모멘텀: DC→IRP 실물이전 허용 확정 시 잠재 이동 풀이 대폭 확장되며 자산관리 특화 대형사(한국금융지주·미래에셋·NH투자증권)에 수수료·운용보수 수익 증가로 연결 전망. 실물이전에 따른 ETF·펀드 잔고 유지는 운용사 AUM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이며 연금 특화 자문 서비스 확대 기회로 판단. 증권사로의 구조적 머니무브 흐름이 지속 심화될 전망.
보험	(8/31) GA,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시동...보험사는 '난색' - 8월 11일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 대형 GA(44개사, 18만명)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 회부. - 법안의 핵심은 대형 GA에 보험사와 모집수수료·사업비를 직접 협상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고접수대행·계약 유지관리·소액보험금 지급대행 업무까지 허용하는 대신 불완전판매 배상책임과 자본금·내부통제 기준도 부과. - 보험사는 GA 협상력 강화로 사업비 비용 상승을 우려해 반발 중이며 입법 과정 난항이 예상.	GA 사업비 협상권 법제화, 보험사 비용 구조 압박 요인: 법안 통과 시 대형 GA가 사업비·수수료 협상 지위를 확보하여 GA 판매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를 중심으로 사업비율 상승 압력이 구조화될 가능성에 주목. 사업비 증가는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 소진 가속과 맞물려 장기 수익성에 부담 요인. 입법 완주까지 정무위 협의·보험사 반발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나, 중장기 GA 역할 확대 및 보험사 유통 비용 증가 방향성은 리스크 요인.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8-31 (월)	7월 산업활동동향 7월 관광통계	미국 8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독일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 영국 증시 휴장 일본 7월 산업생산 (예비치) 일본 7월 소매판매 (예비치) 대만 2분기 GDP (확정치) 중국 8월 제조업·비제조업 PMI
2026-09-01 (화)	7월 온라인쇼핑동향 8월 수출입동향	미국 8월 ISM 제조업지수 미국 8월 제조업 PMI 확정치 미국 7월 구인 및 이직(JOLTs) 보고서 미국 7월 건설지출 유로존 8월 제조업 PMI 확정치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 유로존 7월 실업률 독일 7월 소매판매 독일 8월 제조업 PMI 확정치 영국 8월 제조업 PMI 확정치 영국 7월 협의통화 및 준비잔고 일본 8월 제조업 PMI 확정치 중국 8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2026-09-02 (수)	8월 소비자물가동향	미국 8월 ADP취업자 변동 미국 연준 베이지북 공개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7월 공장주문 미국 주간 원유재고
2026-09-03 (목)	8월 외환보유액	미국 8월 ISM 비제조업지수 미국 8월 합성·서비스업 PMI 확정치 미국 2분기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확정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유로존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유로존 8월 합성·서비스업 PMI 확정치 독일 8월 합성·서비스업 PMI 확정치 일본 8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 중국 8월 레이팅독 서비스업·종합 PMI
2026-09-04 (금)	7월 국제수지(잠정)	미국 8월 고용동향보고서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유로존 7월 소매판매 독일 7월 공장수주 일본 7월 가계지출 일본 7월 경기동향지수 (예비치)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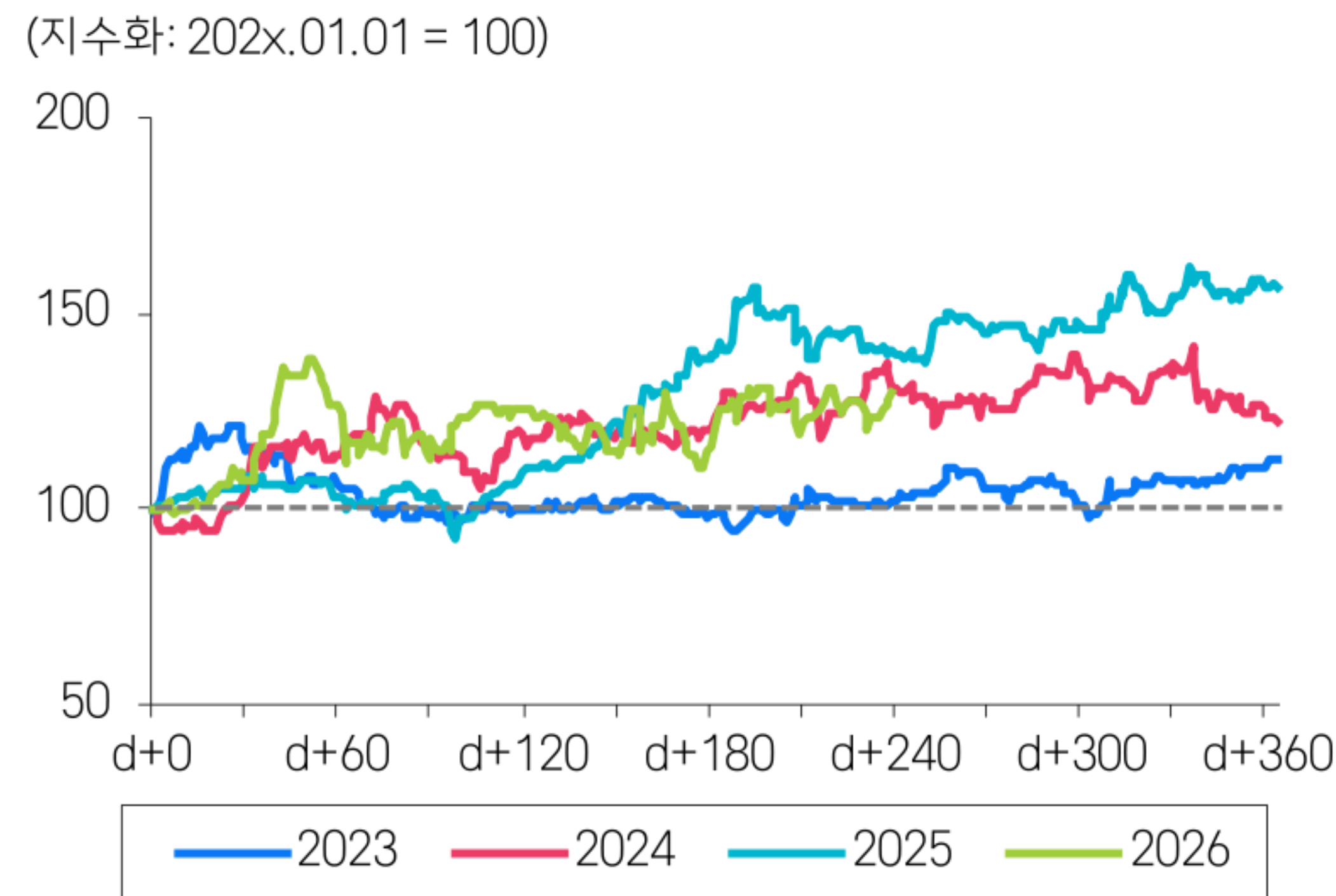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조원)	주가 (원)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5,418.4	6,788.9						(1.8%)	19.9%	112.4%	61.1%
	KRX은행	214.8	1,690.0						5.4%	8.9%	43.7%	29.6%
	KRX증권	64.4	1,881.8						2.0%	9.0%	42.5%	23.0%
	KRX보험	125.6	4,523.2						2.9%	23.5%	80.4%	69.0%
	결제 지수*	1,424	n/a						8.7%	29.6%	14.5%	8.5%
은행	KB금융	60.9	171,600	55.4	1.0	12.1	8.8	19.9	4.4%	7.2%	57.3%	37.6%
	신한지주	51.5	109,700	52.9	0.9	10.9	8.9	22.0	5.4%	11.6%	66.0%	42.7%
	하나금융지주	37.3	136,000	50.0	0.9	10.9	8.2	15.1	5.6%	13.0%	64.1%	44.5%
	기업은행	16.6	20,850	36.0	0.5	8.7	6.3	3.7	4.3%	3.2%	8.7%	(0.5%)
	BNK금융지주	4.7	15,120	44.7	0.4	7.7	5.7	2.2	5.7%	1.1%	1.8%	(4.7%)
	JB금융지주	5.4	29,050	43.2	0.5	9.5	5.4	22.4	9.2%	10.7%	23.4%	13.3%
	iM금융지주	2.9	18,120	50.9	0.9	13.1	7.4	5.2	5.5%	15.3%	29.1%	16.5%
	카카오뱅크	10.4	21,850	50.0	1.5	8.9	16.9	28.6	2.6%	3.3%	(13.1%)	1.2%
증권	미래에셋증권	19.6	36,150	25.8	1.0	23.6	5.9	130.6	4.8%	17.8%	90.2%	55.5%
	NH투자증권	9.8	26,650	41.6	1.0	16.4	5.9	57.2	2.1%	2.7%	35.2%	26.3%
	한국금융지주	10.7	191,300	24.6	0.8	22.9	4.0	44.6	3.7%	4.3%	44.6%	18.3%
	키움증권	7.3	278,500	28.9	0.9	23.9	4.4	54.1	3.9%	8.6%	32.9%	(3.8%)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20.4	122,000	51.7	1.3	23.1	6.2	9.7	5.7%	3.7%	(2.9%)	7.9%
	삼성화재	30.7	687,000	42.0	0.7	8.1	9.4	30.8	3.9%	17.0%	52.0%	38.2%
	삼성생명	62.0	310,000	35.0	0.5	4.7	11.1	88.5	(5.6%)	16.8%	115.1%	96.7%
	DB손해보험	12.3	187,400	30.3	0.8	13.9	5.8	11.4	5.4%	21.1%	42.0%	42.9%
	한화생명	5.2	5,950	10.8	0.3	6.8	4.7	6.9	8.8%	46.2%	90.1%	82.8%
	현대해상	4.5	52,400	13.5	0.5	16.6	3.3	8.0	5.3%	42.0%	86.5%	70.1%
결제	카카오페이	6.4	47,350	n/a	n/a	6.5	57.7	145.0	11.4%	20.3%	(21.3%)	(3.6%)
	NHN KCP	0.6	16,150	n/a	n/a	17.3	11.6	23.9	13.9%	43.7%	19.3%	8.3%
	KG이니시스	0.3	10,640	n/a	n/a	6.7	5.6	8.6	6.4%	17.3%	4.6%	4.1%
	KG파인애플	0.2	4,260	n/a	n/a	10.3	1.3	12.1	6.0%	14.5%	(15.6%)	(9.4%)
	나이스정보통신	0.3	7,200	n/a	n/a	6.4	6.9	0.9	5.0%	27.9%	58.6%	42.0%

참고: 8/28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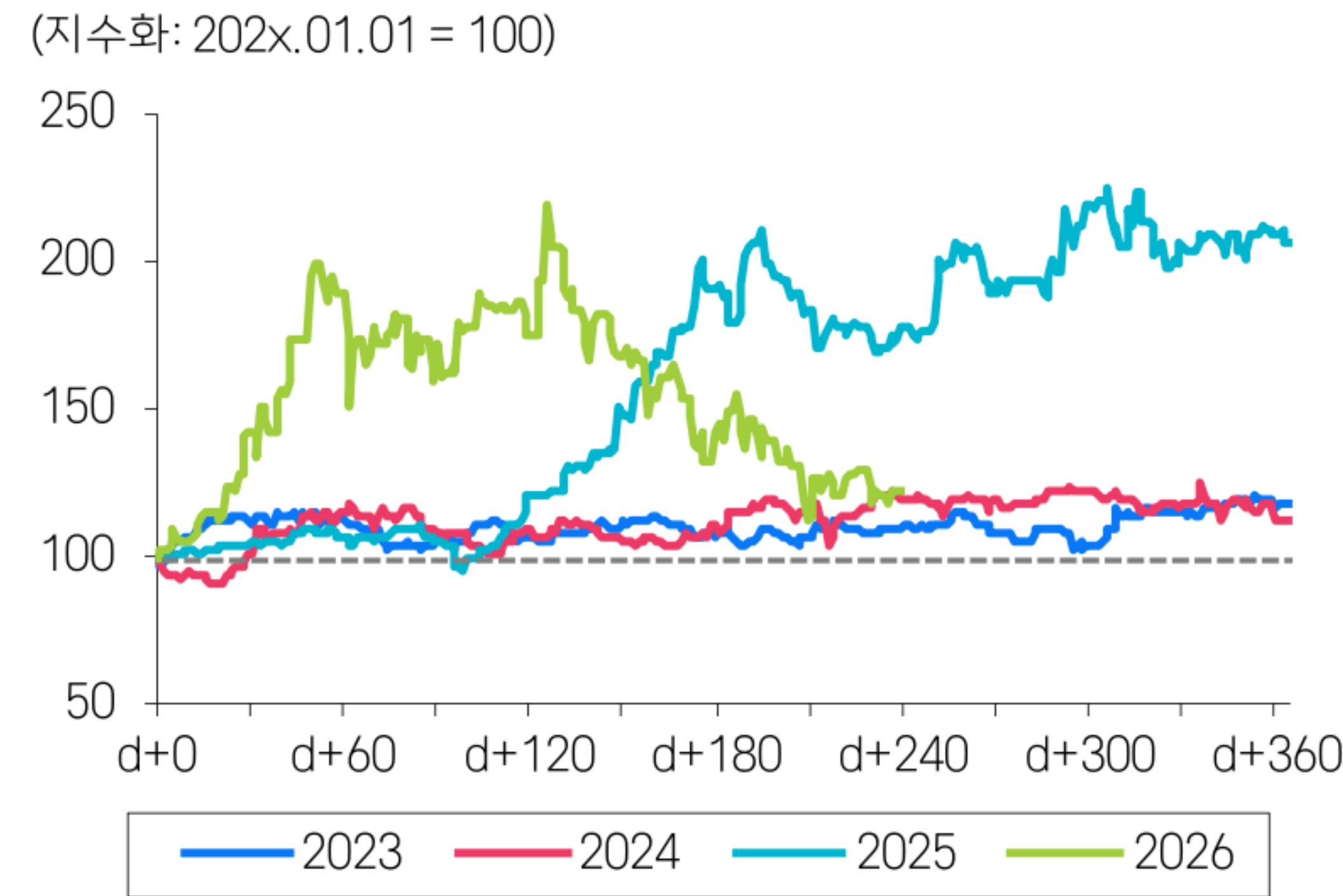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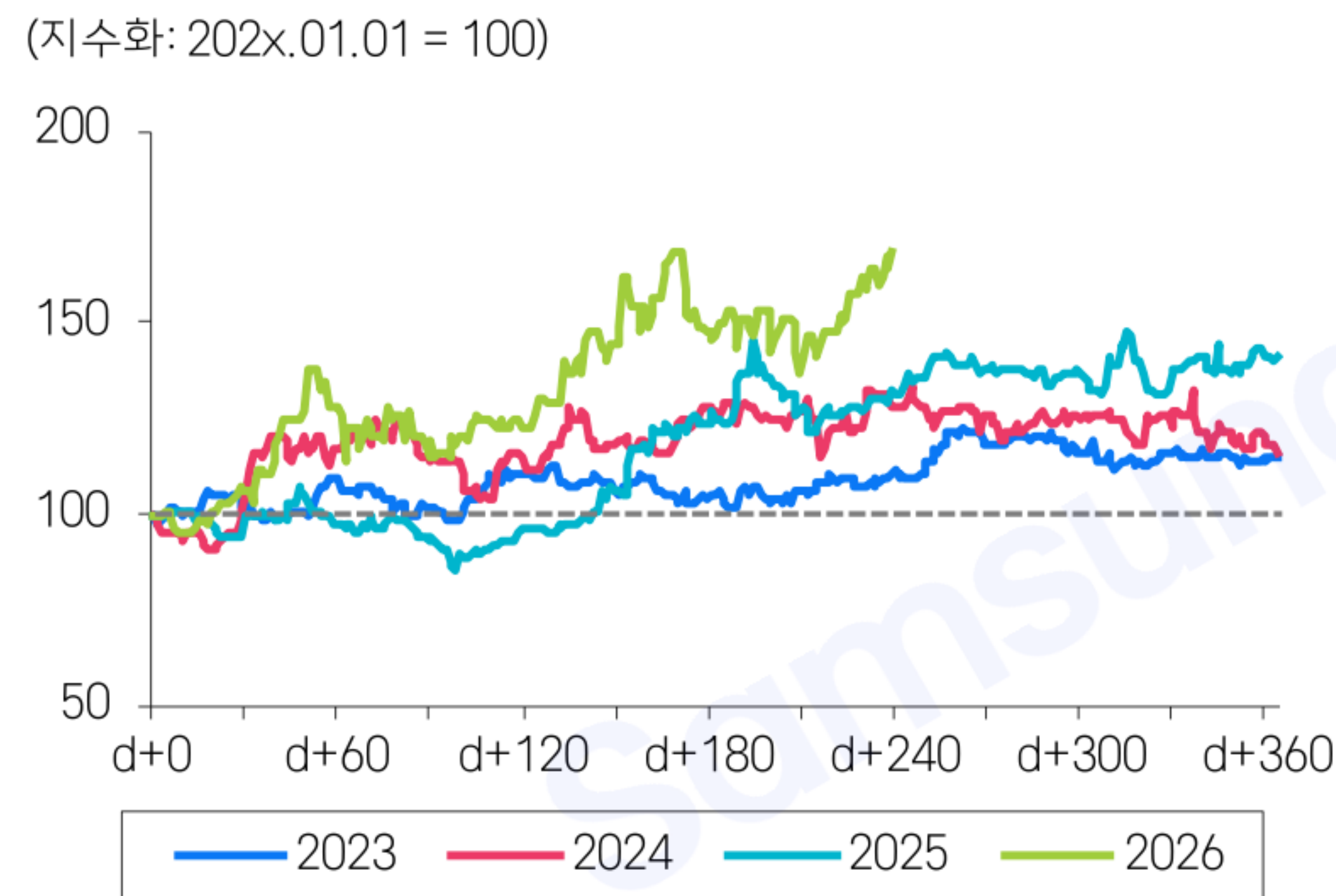
자료: Quantiver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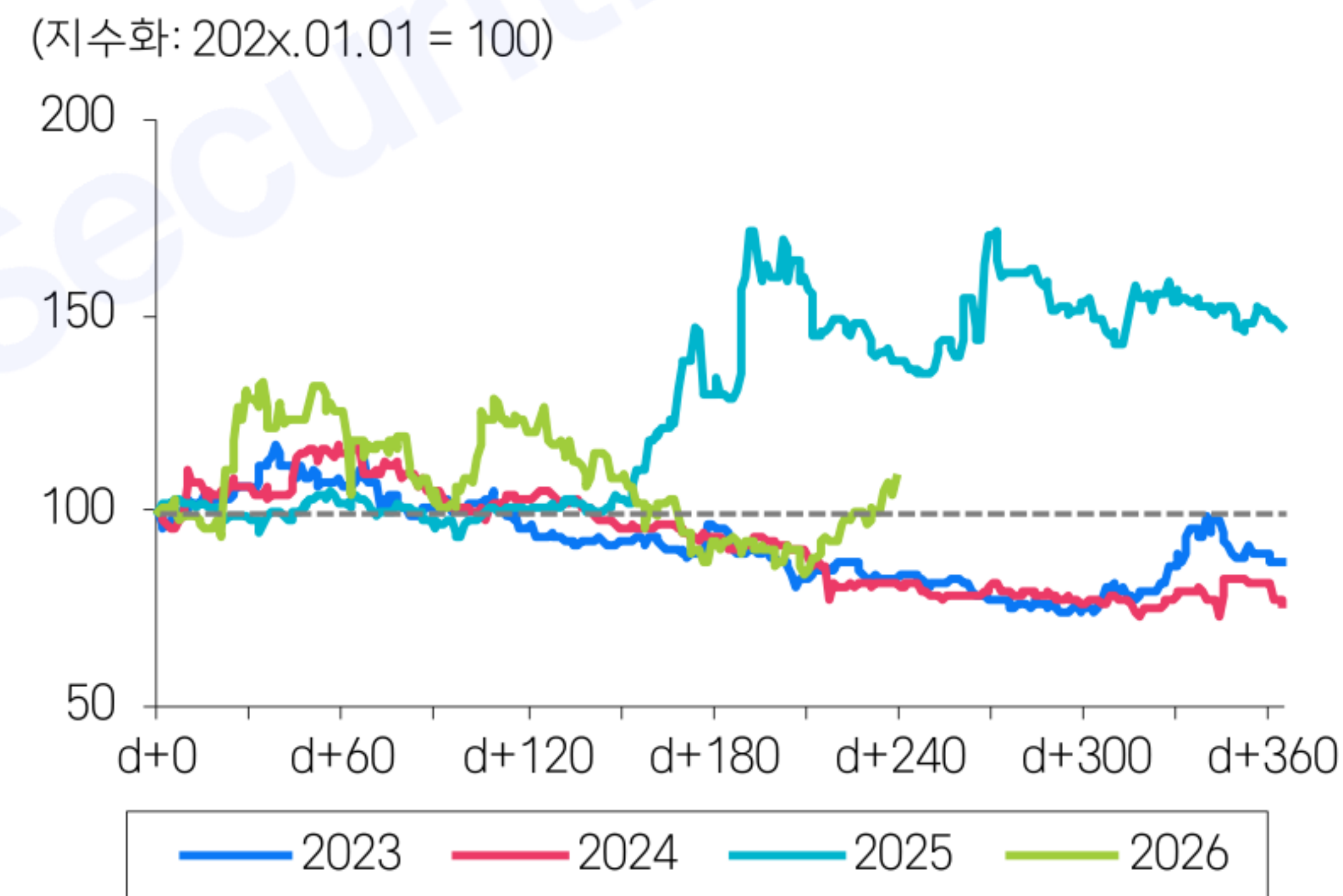
자료: Quantiver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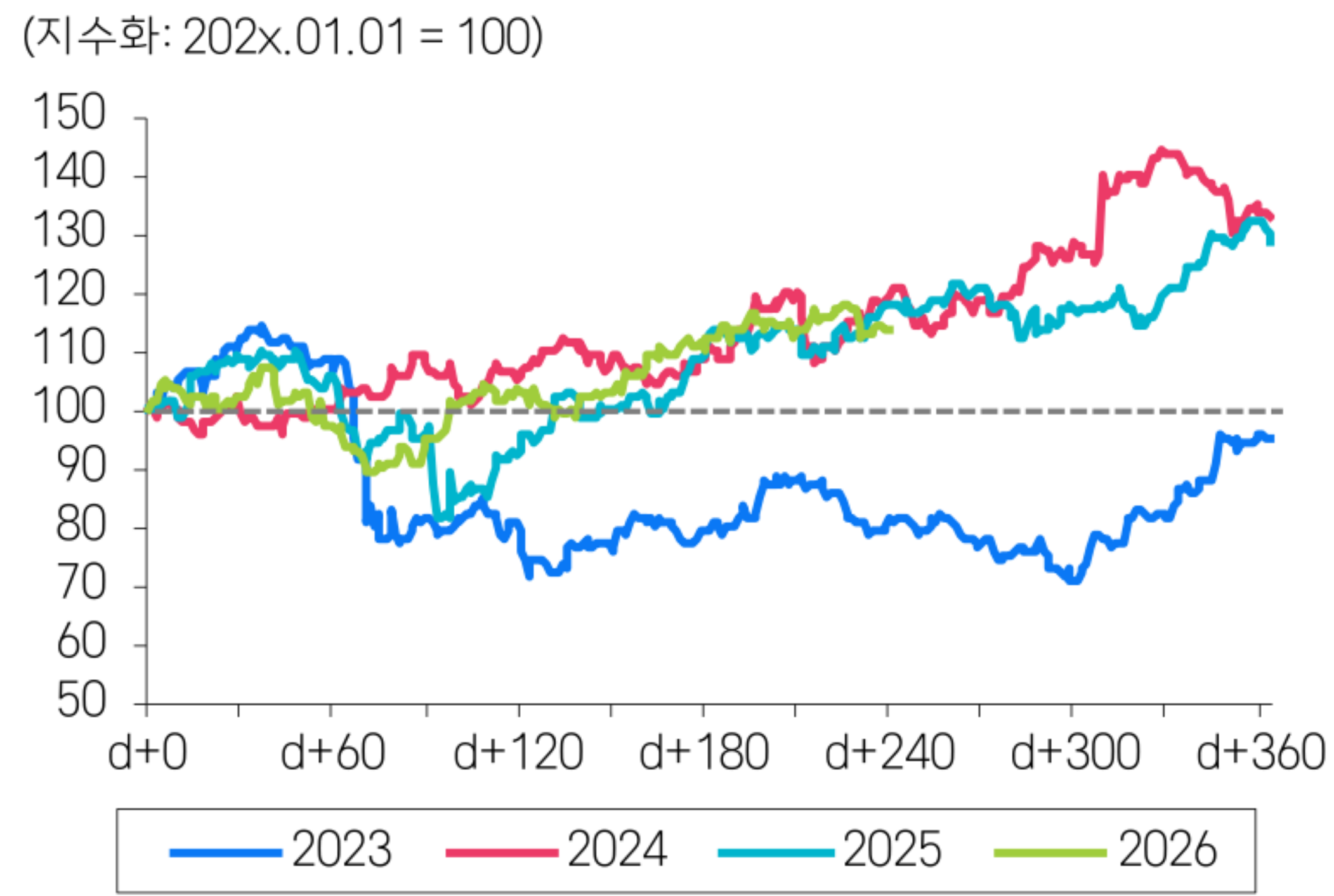
자료: Quantiver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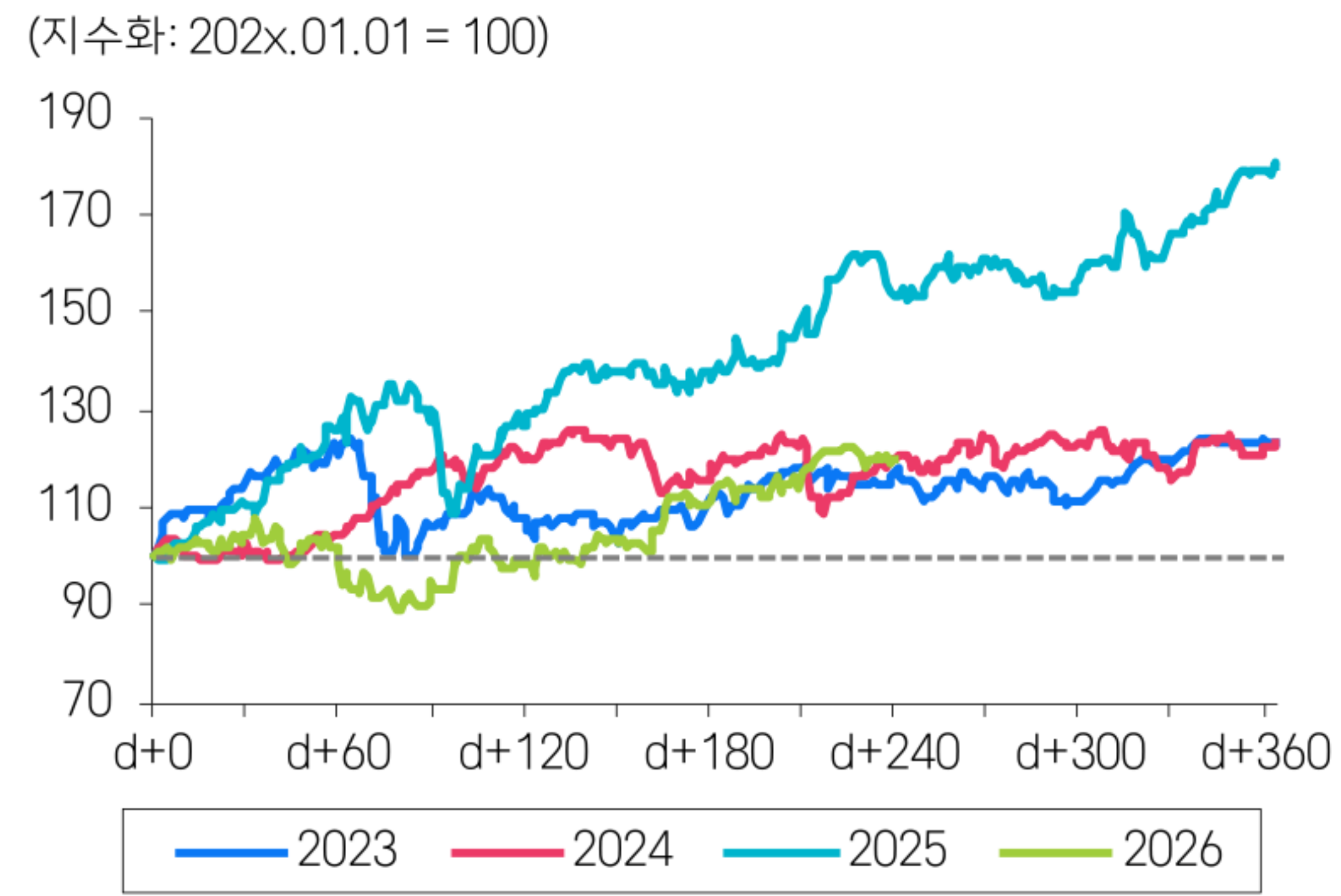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ver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950.6	70.4	2.6	18.8	14.4	24.4	1.7	1.9	18.6	11.0
		Bank of America	435.8	98.0	1.5	12.2	13.4	22.1	1.0	1.0	22.8	13.3
		Citigroup	222.9	116.5	1.1	10.0	12.0	58.7	0.9	0.4	37.6	13.9
		Wells Fargo	262.2	87.6	1.5	13.3	11.8	17.2	3.4	1.5	5.5	(7.0)
		PNC Financial	96.6	72.1	1.6	13.2	12.8	14.0	(0.4)	(2.6)	16.8	16.0
	유럽	Banco Santander	221.2	64.2	1.7	13.9	11.8	12.6	1.3	3.2	55.8	26.2
		Unicredit	148.0	78.7	1.8	16.4	11.2	7.2	2.0	3.8	28.3	19.4
		BBVA	161.9	99.5	2.3	19.9	11.8	20.3	0.9	3.5	61.7	24.9
		ING Group	101.4	87.3	1.7	13.9	12.3	17.2	2.1	0.1	50.7	27.8
		Lloyds	86.4	82.8	1.5	14.0	10.2	42.5	(1.2)	(4.9)	38.3	11.9
		Barclays	90.5	71.4	1.0	10.7	9.1	20.3	0.8	(2.8)	37.8	4.3
	일본	Mitsubishi UFJ FG	271.1	50.2	1.7	12.1	14.7	16.7	4.3	2.4	61.9	46.7
		Sumitomo Mitsui FG	163.9	62.0	1.6	11.0	14.5	15.6	4.5	1.3	70.5	36.9
		Mizuho FG	129.5	57.1	1.7	12.6	14.3	17.7	4.6	3.9	73.4	48.9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97.4	29.9*	0.6	9.1	7.2	3.5	(0.4)	(0.9)	29.0	18.4
China Construction Bank		314.0	30*	0.6	9.6	6.9	2.1	(1.1)	(0.8)	21.7	18.9	
Agricultural Bank of China		346.6	30.2*	0.7	9.9	7.7	4.2	(0.9)	(1.3)	18.6	7.7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76.4	N/A	1.4	6.5	19.2	(15.2)	1.9	(0.9)	0.4	0.4
		AIG	40.2	88.9	1.0	10.2	10.7	흑전	1.1	(2.5)	(5.4)	(10.1)
		Travelers Insurance	77.2	82.6	2.2	22.0	10.8	25.3	1.7	(1.6)	36.2	27.5
	유럽	Allianz	199.6	81.4	2.7	18.3	14.8	10.8	2.8	4.7	25.4	16.0
		AXA	105.6	60.1*	1.8	17.0	10.5	(8.2)	(0.3)	(3.0)	9.6	6.5
		Generalli	78.4	57.2*	2.0	14.3	14.0	14.4	2.7	0.3	32.3	23.4
	일본	Tokio Marine	92.9	49.1*	2.2	14.5	15.1	82.6	4.7	(5.2)	20.2	32.3
		Daiichi Life Insurance	41.7	49*	1.5	12.8	12.6	22.3	3.0	(3.9)	50.3	41.4
	중국	Ping An Insurance	142.5	34.1*	0.9	14.4	6.7	11.2	1.2	(3.0)	1.1	(12.7)
		China Life Insurance	146.4	16.8*	1.2	23.1	5.5	(2.7)	4.8	0.8	22.5	7.5
		PICC P&C Insurance	45.3	37.4*	1.2	13.9	8.5	4.2	(0.7)	(2.6)	(14.8)	(2.3)
증권	미국	Goldman Sachs	313.0	97.3	2.7	19.6	14.7	37.3	(0.5)	0.9	38.7	17.6
		Morgan Stanley	337.3	65.8	3.1	19.2	16.5	27.1	0.3	2.2	42.7	21.0
		Charles Schwab	190.5	79.9	3.9	24.9	17.5	35.4	(1.9)	5.6	14.9	10.3
		Robinhood	93.9	51.4	8.7	19.0	49.0	3.8	(3.6)	20.4	0.2	(7.8)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25.0	84.3	6.7	35.2	18.9	14.8	(0.8)	(1.3)	0.6	(9.9)
결제	미국	VISA	712.5	21*	20.2	67.5	30.3	23.4	2.8	4.2	8.5	8.8
		MasterCard	521.6	17.7*	70.6	237.8	30.4	18.6	2.5	3.1	0.0	4.3
		PayPal	45.9	10.5*	2.4	23.8	10.7	(7.3)	(12.8)	(6.9)	(23.6)	(8.1)
	유럽	Adyen	40.0	0*	5.3	21.4	28.1	15.5	1.5	24.3	(24.0)	(20.7)
핀테크	미국	Block	50.2	0*	2.2	9.7	50.7	(21.5)	1.7	1.2	4.9	28.4
		Upstart	2.8	0*	3.3	16.3	43.1	50.1	(4.0)	7.5	(60.3)	(33.5)
		Affirm	26.3	0*	4.4	13.2	39.8	(64.6)	0.9	6.2	(12.1)	4.5
	중국	LuFax	1.1	N/A	0.0	(1.2)	(1.3)	흑전	(5.8)	(17.6)	(55.4)	(48.8)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28 종가 기준
* 현금 배당 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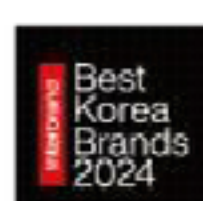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